약통 구체화

질문사항

- 3D 얼마나 크게 가능? 최대 규격 (3d 기계)
- 웹앱에 대한 타당한 근거? React-native? React?

핵심 기능

안먹으면 알림 (카톡/문자)

몇시에 먹었는지, 스킵하신건지, 어떤 약을 먹는지 일주일마다 보고서 처럼 보여주기

시간 크게 + 날씨를 이모티콘 (+ 어제보다 추움 / 따듯함, 우산 가져가세요) 등 보여주기 => 웹페이지? Qt?

시간이 돼서 알람이 울리면 화면에 약을 먹을 건지, 스킵할 건지 알려주고, 어떤 약인지(혈압약, 당뇨약) 알려준다

약통 이름 만들기

필리 (pill + reminder)

메디보틀

1. loT 기기 (HW)

2. FE

3. BE

기능 (1. 약통설계) / 희욱 , 현우 HW

- 1. 원통 형태로 설계 (원통 두개 (겉 / 속))
- 2. 모터로 돌리고 / 입구에는 서보모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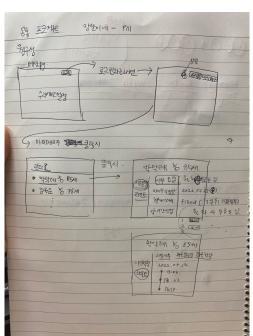
(필요한 부품 >> 모터 (스텝모터 || dc모터 >> 뭐쓰지?) / 모터 드라이버 / 서보 모터 / 기어 (3d로 만들지 / 살지) / 컨버터

- 3. 3d프린팅으로 감싼다 (디자인 문제) >> 어떻게 부품별로 제작할지? (외형 만들기) // 3d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규격
 - >> 3d 프린팅 툴 문제 해결해야된다 (내껀 라이센스 만료 ㅠ >> 툴문제 해결이 가능한지? >> 정 안되면 크랙으로)
- 4. PyQT로 GUI 구현 (평소에는 날짜 / 시간 / 날씨 / 온도 를 보여주다가 (스마트 시계처럼?) >> 복약시간이 되면 선택창 띄워주고 / 일정 시간 경과하면 알림 전송)

선택창에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복약 여부 확인 / 복약 시간이 된다면 스피커 달아서 음원 파일 재생

기능 (2. FE) >> 보경 , 도현

- 1. 약통에 붙은 클라이언트 페이지(워낙 단순한 기능만을 필요로해서 pyqt 로 할수도 -> 그러면 필요없지)
- 2. 센터차원에서 복수의 약통의 현황을 관리하는 페이지
- 3. 요양 보호사 개인이 약을 먹는



기능 (3. BE) >> 희선 , 준수

- Pyqt 로 날씨정보, 시간 데이터 등 보내주기
- 혹은 웹페이지 자체를 보여준다면 웹으로 날씨정보 보내주기
- DB에서 웹(관리자 페이지)으로 약 복용 통계 데이터 보내주기
- Spring, MySQL 사용

질문

3D 프린팅 사용가능 여부와 성능을 확인하는 것

웹앱? 웹뷰? - native 로 해야될까요

여러 기기를 한 번에 관리하는 페이지

앱으로? 브라우저로?

컨셉 (요양보호사 지급이 메인, 이외에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음)

걱정,,

3D 프린팅 의존도가 높다,,

3D 사용 빨리 할수잇는지 가능한지 모르뮤ㅠㅠ

대체방안 ?: 외주

3D 프린터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멀티캠퍼스 건물에 없지 않을까..

3D프린터 사용이 필요하신 팀은

- 1. 프로젝트 설명
- 2. 사용 용도
- 3. 사용 원하는 기간
- **4**. 소요 시간

3D 프린터 모델명?

와이어 프레임, ERDhttps://www.erdcloud.com/, 화면설계 나오면 다시 팀미팅 가즈아백엔드,, 한번도 안해봤다면 힘들수도ㅠㅠ

걱정,, 2

현재 켜져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https://cloud.google.com/iot/docs/how-tos/config/getting-state?hl=ko

활용방안

1. Print 버튼 or Pdf 로 내보내기 버튼 추가 : Pdf 로 약 복용기간과 복용 내역을 뽑아서 추후에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약 처방받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다

약정보:약사에게 물어봐요

1. 약 세부정보가 필요할까?

<필요하다 측>

- 먹고싶지 않은 약이 있는 경우, 해당 약만 제외하고 먹고 싶은데 / 어떤 약이 무슨 종류인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
- 당뇨약의 경우, 술을 마시고 약을 먹게되면 오히려 위?에 안좋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날에는 당뇨약을 먹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. 따라서 약종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골라?낼 수 있거나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
-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경우 먹는 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니즈가 존재한다.(수영장 할머니들은 자신이 무슨 약을 먹고, 건너뛰고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봤었다)
- 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므로, 이용자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권리가 필요하다 생각함

<필요하지 않다 측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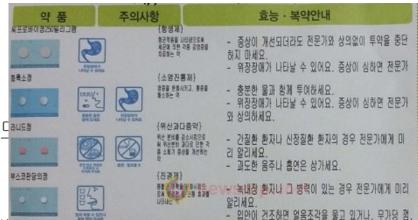
- 평소에 먹을때도 어떤 약인지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걍 먹어야하니까 먹는다.
- 먹는 약 종류가 많으면 오히려 더 자세히 알기 귀찮아하시지 않을까,, >> 굳이 알고싶어하실까
- 구현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...ㅠㅠ >> 하드코딩?, API 찾아보기

약정보: 약사에게 물어봐요 ..2

1. 처방전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도 막상 혈압약과 직결되는 약은 한 종류고,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위보호제 같은거를 같이 처방받는데, 약의 종류를 분류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,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? 어르신들한테 약 설명해줄 때 어떻게 해주는가?

적용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

1. DB 있을 거 같지만 진짜 있는지는 아직



대부분 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려고 하고, 받게 되면 악이 같이(같이 소문되어서?) 나온다, 부득이하게 다른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=> 처방전을 보고 다른 병원에서 확인하고 처방해준다

다양하게 받아도 과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전은 따로 나오고